

전남 현안들 대선 정책 공약화...지역발전 마중물 기대

국립의대·에너지고속도로 등 핵심과제 20건 중 7건 포함 우주산업 등 추가 반영 총력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전남의 주요 현안들이 6·3 대선 공약에 대거 반영되면서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 전남도가 제안한 주요 핵심과제들이 반영됐다.

전남도가 각 정당에 제안한 핵심과제 20건 가운데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7건이 정책공약으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전남지역 현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역 공공의대 설립,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국토균형발전 5대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 등이다.

또 2028년 여수 유치를 추진 중인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도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받은 작업복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서비스를 방문해 산림청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전남도가 건의한 기본소득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책 공약 가운데는 '장성-광주(송정)-나주-무안 공항-목포'를 이어 호남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급행화하는 '광주전남GTX'가 포함됐다.

앞서 전남도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핵심과제 20건, 분야별 사업 36건, 국정과제 및 제도개선 20건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전남도는 각 정당이 정책공약에 이어 지역 공약을 곧 발표할 것에 대비해 추가로 공약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특히 정책공약에 거론되지 않은 우주산업과 김 산업 활성화, AI 첨단 농축산산업 등 역점 사업이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정당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역 공약을 다듬고 있는 만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 지역의 현안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이재명 "YS 정치고향 부산서 국힘 심판해달라"

"윤석열 지금 즉각 제명" 촉구 "반드시 승리 목표...박빙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맞나. 민주 정당이 맞나"라며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당하든지 둘 중 하나

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고 말한 뒤 "이번에도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했다"며 "투표를 포기하는 분이 없어야 한다.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을 만나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변에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 확보해달라.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날 부산·경남(PK) 지역까지 민주당의 '협치'로 꼽히는 지역에 먼저 찾아온 이유를 지지자들이 묻자 "협치라 서 먼저 온 것은 아니다. 모두다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나"라며 "전통적인 루트(방식)에 따라 경부선 라인을 따라 내려온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김현수 기자·연합뉴스

민주 "김문수, 사과 같지 않은 계엄사과...국민 기만"

"윤석열부터 즉각 출당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출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그제(12일)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 해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처벌 수 없다고 하니 기만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과반수가 계엄에 반

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떠나서도 안되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무우선권을 가진 김 후보가 즉각 윤석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나마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진행자가 '실제로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절연하지 못할 것"이라며 "김 후보는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다.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기반과 출발점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도 "반헌법과 내란, 극우세력이 한데 모여 마지막 발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석동현씨가) 전광훈이 이끄는 길거리 극우세력과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한다"며 "흠어져 있으면 쓸어 모아야 하는데 끼리끼리 모여하니 참 좋다. 이번 대선에서 꼭 치워버리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김문수, 윤석열 탈당 관련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재명, 나라 위기의 진앙"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지를) 제가 듣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언

급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나라 위기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책임이) 크지만,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거의 독재, 독주"라며 "자기중심으로 모

든 것을 바라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라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자기 재판 안 받고 자기는 기소 안 해라 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이라면 민주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민주를 모르고 가장 독재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연합뉴스

김혜경 여사 "시간 갈수록 어머니의 마음 느껴져"

광주 찾아 5·18 유족 면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14일 광주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1980년 5·18 당시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아다니다 얻은 지병으로 고통받는 유족에게 김 여사는 "젊었을 때는 화와 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사모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위로하자, 김 여사는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제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5·18 전 유족들을 미리 찾아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히고, 방명록에 "오월의 눈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고 글을 남겼다.

비공개 면담이 끝나고 김혜경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김 여사가 12·3 계엄이

후 5·18 어머니들이 격정됐으며 당시 심정을 몰았다"며 "오월정신 헌법수호를 꼭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를 비공개 방문한 김 여사는 오전에는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 하며 지역 유권자들과 만났다.

오월어머니집 방문 이후 김 여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증인' 고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한 조영대(조비오 신부의 조카) 신부를 만났고, 오는 16일에 다시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식중독 예방 6대수칙 지켜요!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보관 온도

냉장식품 5°C 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구분 사용

날음식과 조리식품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